

포커스 업(業)

사람과 환경의 연결 ‘그린뉴딜’, 산업의 판을 흔들다

지난 75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천명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 자연환경이 깨끗해지는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주제를 던진 것이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로서 ‘환경’을 강조하자 환경과 관련된 산업의 주식이 급등했다. 이처럼 그린 뉴딜에 의해 제기된 ‘환경’은 산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미래가치와 그에 발맞춰 주목받고 있는 환경 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코로나19로 깨달은 ‘환경과의 공존’



그린 뉴딜의 핵심가치는 환경을 지켜가며 인간과의 공존을 전제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운동과 단체들은 많았으나 정작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거나 자기 일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서식처를 잃고, 해마다 평균 수온은 올라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확연히 짧아진 가을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지역을 자랑하던 특산물들은 점점 북쪽으로 재배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생선들의 서식처 또한 점점 바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공장 운영과 외출이 줄어들자 청정한 대기를 볼 수 있었으며,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환경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반면 인간이 노력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변화와 경제 회복을 병행하여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와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를 신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투자 효과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린 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개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향에 맞춤형 온실가스 총량제와 제로 에너지 의무화는 건물과 도심,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로에너지 의무화의 경우 건물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아닌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태양광을 통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내연 차량이 2035년부터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면 교체를 선언하여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 도시 숲을 조성하여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형태도 그린 뉴딜에 포함된다.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자원순환을 먼저 거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의 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의 대처법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한다.



기업의 성패를 정하게 될 ‘녹색 산업’



그린 뉴딜의 영향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골드만삭스의 미켈레 델라비나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그린 뉴딜로 전 세계 16조 달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서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수익 기대율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추후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역전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여러 형태를 보이며 그에 따라 관련된 인프라 역시 연구·개발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 뉴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젊은 창업자와 구직자들을 위한 '그린 뉴딜 유망 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5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총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같은 녹색산업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책 자금, 투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과의 공존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환경 산업과 그 중심에 설 기업들을 그려본다.

리포트 리뷰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 그린 뉴딜과 환경 산업

수질 오염과 물 부족, 폐기물 증가와 대기·토양 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새로운 환경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위기 극복과 불평등 개선,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계획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의 시작

2008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50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뿐 아니라 노동자·취약계층의 기본권 회복과 연계된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다. 일부 성과로 2005년 대비 2018년에는 6% 이상 성장률을 지속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45.8%로 감소되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하고, 미래 성장 전략으로 그린 딜(Green Deal)을 채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그린 뉴딜 핵심과제

한국판 그린 뉴딜은 과거 단계적 녹색 뉴딜을 지양하면서 디지털·환경·사람에 대한 포용적 방식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연계하여 향후 국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포괄적 정책을 담고 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 육성, 거점 조성, 생산 기반 개선,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과 '그린(Green New Deal) 뉴딜' 두 개의 축을 두고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지향한다. 여기에 신기후변화체제 적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핵심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그린 딜과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미국식 그린 뉴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육성과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및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중국의 신 인프라 정책과 방법론도 공유한다.

* 탄소중립(Net-Zero, Carbon Neutral)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출처 - 두산백과

#그린뉴딜 핵심과제

<p>그린 모빌리티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 전기출전기 4,500대, 수소충전기 450대 등 충전 인프라 확충 	<p>녹색산업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 스마트 그린산단 10개소 구축 ·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p>녹색생태계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복원
<p>녹색 기술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p>신재생에너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태양광 출력 발전용량 12.7GW에서 42.7GW로 확충 	<p>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출처 - 환경부 한국판 그린뉴딜

그린 뉴딜로 주목 받고 있는 환경 산업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환경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 산업은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및 측정 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다. 일반 산업을 경영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환경 사업을 하는 것도 환경 산업에 포함한다.

환경산업 분류-OECD/Eurostat 매뉴얼(1999)

오염관리그룹 (Pollution Management Group)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그룹 (Cleaner Technologies & Products Group)	자원관리그룹 (Resource Management Group)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	넓은 의미의 환경사업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산업활동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제거하는데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절약 및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실내공기 오염조절 등과 같이 직접보다는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산업활동
-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토양, 소음 및 진동부문 등과 관련된 환경장비(설비) 및 원료 제조업	- 청정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제품	- 재활용물질, 재생에너지플랜트, 열 및 에너지 절약(관리) 등
-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토양, 소음 및 진동부문, 환경컨설팅 등과 관련된 환경시설 건설업과 환경서비스업		
① 생산업 ④ 건설업 ⑥ 유통업 ⑧ 서비스업	② 생산업	③ 생산업 ⑤ 건설업 ⑦ 유통업 ⑨ 서비스업

출처 - 「2019년 환경산업 통계조사보고서」 (환경부)

환경 산업은 자원순환관리, 물 관리, 환경복원·복구,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보건, 지속 가능 환경자원, 환경지식·정보감시로 분류되며, OECD 매뉴얼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은 8대 매체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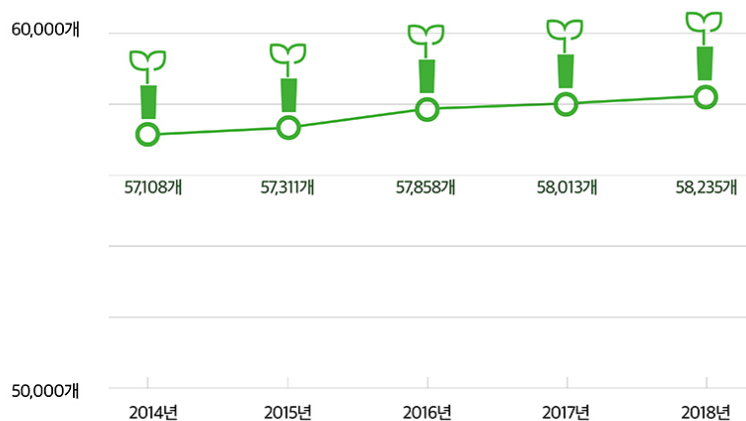
환경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 표준

(대분류) 23. 환경 에너지·안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산업환경	01 수질관리	01 수질오염분석
		02 수질공정관리
		03 수질환경관리
		04 정수시설운영관리
		0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06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02 대기환경	02 대기관리	01 대기환경관리
		02 온실가스관리
		03 기상기술관리
		04 기후변화적응
		01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
03 폐기물관리	02 폐기물관리	02 폐기물관리
		01 소음진동관리
04 소음진동관리	02 소음진동특정·분석평가	02 소음진동특정·분석평가
		01 지하수관리
05 토양·지하수관리	02 토양관리	02 토양관리
		01 환경보건관리
02 실내공기질관리		
03 위해성관리		
02 환경보건	01 생태복원·관리	01 생태복원
03 자연환경		02 생태관리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01 환경컨설팅
		02 환경시설운영
		03 환경관리
02 환경평가	01 환경영향평가	01 환경영향평가
		02 환경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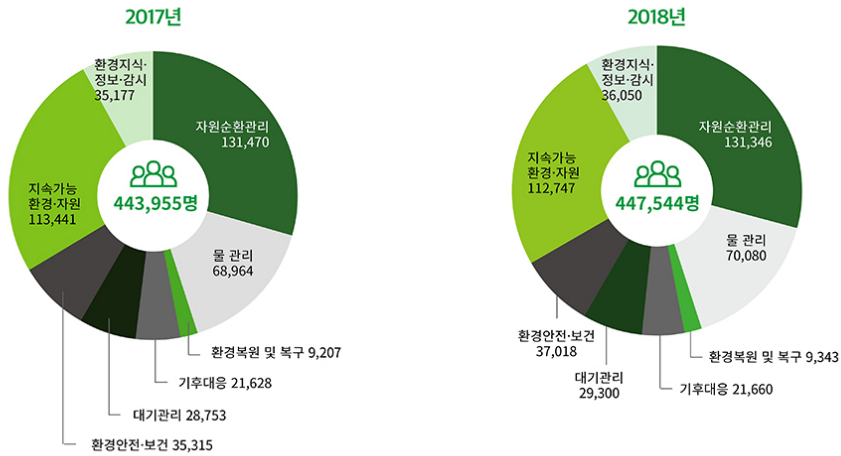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홈페이지(www.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분류에 따르면 환경 산업 관련 직무는 중분류 기준으로 산업환경, 환경 보건, 자연환경, 환경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중분류 내 수질관리 등 9개 소분류, 수질오염분석 등 26개로 세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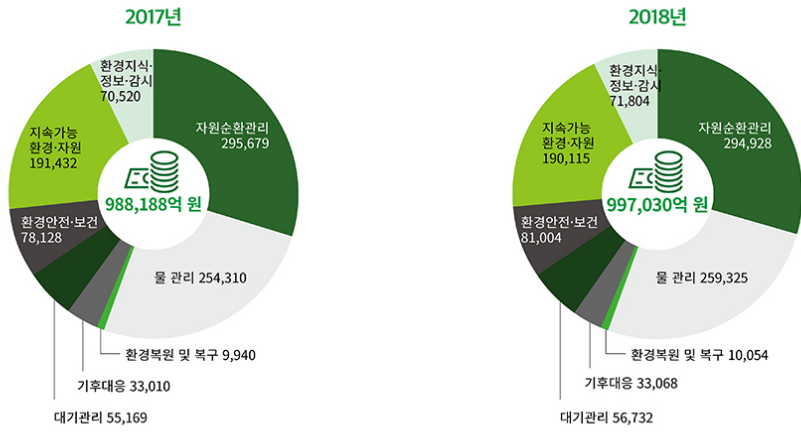
환경 관련 사업체 수



환경 관련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



환경산업 매출액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58,235개이며, 종사자는 447,544명이고, 매출액은 99조 7,03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여 190.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 TSK CORP

이달의 기업

Eco-Friendly 사업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종합환경기업 TSK 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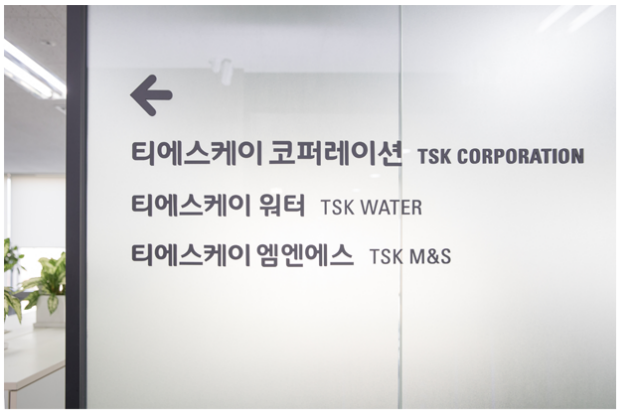
티에스케이 워터 TSK WATER

TSK 워터는 기술집약형 물 관리,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 관련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시공,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 1위 종합환경기업이다. 최고의 운영 노하우 및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적 운영 및 시공, 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공공 환경 복합시설 개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대한민국의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출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SK 워터는 수(水) 처리, 폐기물 관련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대행 및 민간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수주한 사업은 하루 하·폐수 처리용량 80,000m³의 김천 공공 하수처리시설이다. 현재 김천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술의 복합화를 통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가축 분뇨처리 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소각시설, 태양광발전 시설 등 종합환경시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TSK 워터 사업소는 총 70여 지자체를 근간으로, 20개 이상의 융복합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중이다. 기획 제안부터 투자, 건설, 운영까지 이어지는 융복합 환경사업을 진행하며 환경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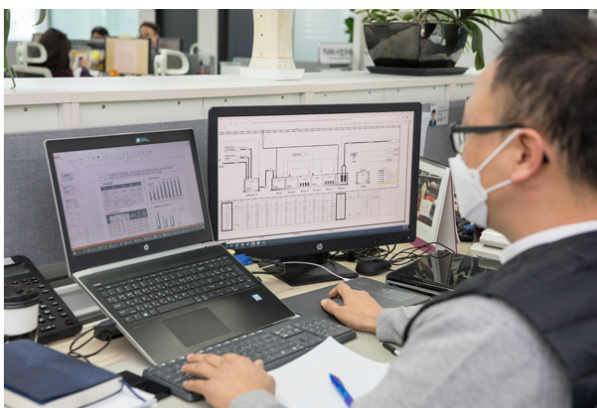
환경 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큰 기여가 되지만 산업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산업'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작업자와 설비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함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불결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TSK 워터는 이 점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으로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농구와 축구와 같은 체육시설 및 주민 친화적 공원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학습시설 구축, 사회적 혐오시설에서 친환경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면서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TSK 워터 이문드 대표는 그린 뉴딜의 첫걸음으로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며, 폐기물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TSK 워터는 2000년 초반부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을 향상을 위해 사업소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폐열을 재활용하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 과정이나 폐기물 처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화할 것인지 고민하며 환경 산업과 그린 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수를 처리하면 하수 슬러지(폐기물)가 발생하는데 주로 매립하거나 태워서 처리했지만, 슬러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연료를 만들거나 슬러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또 다른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그린 뉴딜', '환경 산업' 등의 의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TSK 워터도 이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문드 대표는 "TSK 워터가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관련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여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국 각지의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TSK 워터 임·직원은 그린칼라의 일원으로 환경보존 및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mini interview

TSK 워터 이문드 대표

- Q** 12월 웹진의 테마는 '그린 뉴딜'입니다. 미래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할 신기술변화체제 진입 준비를 위해 각국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TSK 워터가 들려주실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 A** 지금은 '그린 뉴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인 거 같습니다. TSK 워터도 그린 뉴딜 시대에 발맞춰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水) 처리나 폐기물 관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전력,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공간에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공공 환경기초시설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술 자체가 그린 뉴딜이고, 환경 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Q** 환경 ISC는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나요? 또 협업을 진행한 내용이 있나요?
- A** TSK 워터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상하수도협회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환경 ISC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경 ISC가 향후 TSK 워터의 환경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나아가야 할 목표 및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에 함께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역량 개발 모델링 부분에서 활발하게 교류 중입니다. 아직은 기획 단계이지만, 환경 ISC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Q** TSK 워터가 지향하는 목표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 A**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기술을 체계화하여 AI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사업소 한 곳을 AI 모델링 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TSK 워터 내에 있는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IT를 이용한 운영 기술과 그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세스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사업의 비중을 늘려서 환경처리 시설을 고도화하고, 집적화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TSK 워터가 환경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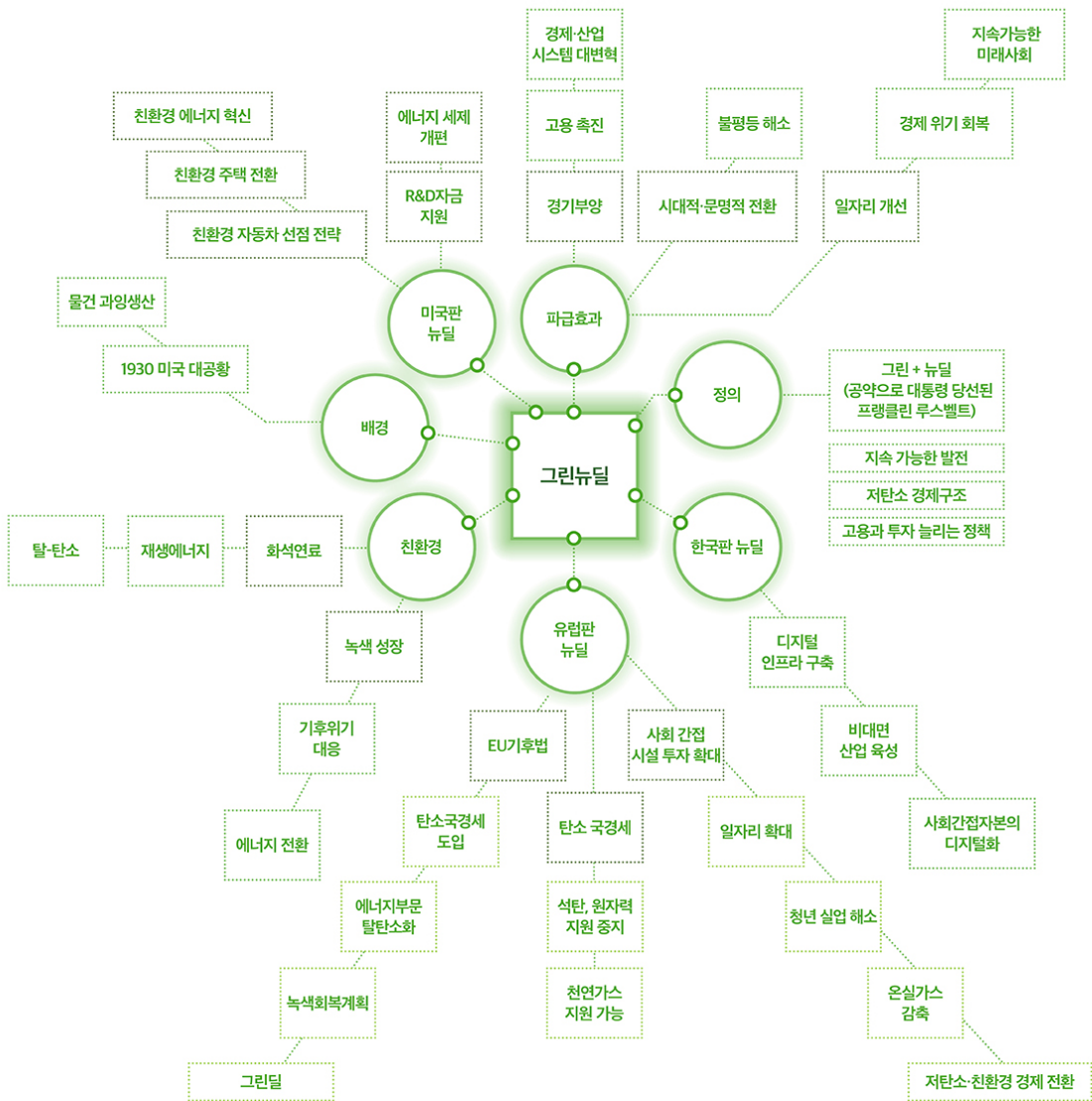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시대

의식의 흐름

‘그린 뉴딜’에 대한 이슈와 정책 어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그린뉴딜로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초록의 이야기’들을 마인드맵으로 풀어봤다.



업(業)로드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 관광

코로나19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요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생태관광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테마다. 도시의 소음에 얽매어 지쳐있다면, 자연의 하늘을 지붕 삼아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속삭임을 느끼고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싶은가? 지금 바로 짐을 싸서 생태관광을 떠나보자!

함께 떠나요~
청정자연 환경 인재 생태마을로!



- 인제 생태마을 - 십이선녀탕계곡
- 인제 생태마을 - 대암산용늪

강원도 인제군 일원에 위치한 인제 생태마을은 2014년 12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곳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 습지보호지역으로 유명한 대암산 용늪을 비롯해 법정 보호 지역이 인제군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선호하는 냇강마을, 백담마을, 달뜨는마을은 훼손되지 않은 청정 자연을 느끼며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시에서 업무에 시달리며 일한 당신! 인제 생태마을로 심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우리 같이 걸어요! 자연 탐방을 하고 싶다면 와야 하는 곳, 양구 DMZ



- 양구 DMZ_ 두타연 평화누리길
- 양구 DMZ_ 을지전망대

여유롭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걷고 싶다면 주목해야 한다. 155마일 휴전선 중심부에 위치한 양구 DMZ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운이 좋으면 산양, 사향노루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두타연 생태탐방로, 십년장생길(4년길)이 대표적인 자연 생태코스로,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DMZ 생태계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4땅굴, 을지 전망대에서 역사체험을 할 수 있고, 양구 백자 박물관, 선사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등산과 명소 구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괴산 산막이옛길로 출발!



- 괴산 산막이 옛길
- 괴산 산막이 옛길_연하협구름다리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은 4km의 산책로로, 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소 구경도 가능해 여행객의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 중 한 곳이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한반도 지형과 40m 절벽 위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피꼬리 전망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사랑이 성취되고 소망이 이뤄진다는 연리지 나무, 매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 붙여진 매바위, 외 산(山) 자를 형성하고 있는 괴산 바위 등이 있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곳이다.

또한, 산막이 옛길과 충청도 양반길을 연결하는 '연하협구름다리'도 있어 산막이 옛길을 찾는 탐방객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연하협구름다리는 2016년 개통했으며, 총 연장 134m, 폭 2.1m의 보행자 전용 다리이다. 구름다리 한가운데 서서 잔잔한 괴산 호수 위에 떠가는 유람선과 주변 절경을 한눈에 바라보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할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루 한 번 건강 챙김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루 한 번 환경 챙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 내에서 배달 음식은 기본!
쓰고 남은 이면지는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일회용 컵? 말해 뭐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일회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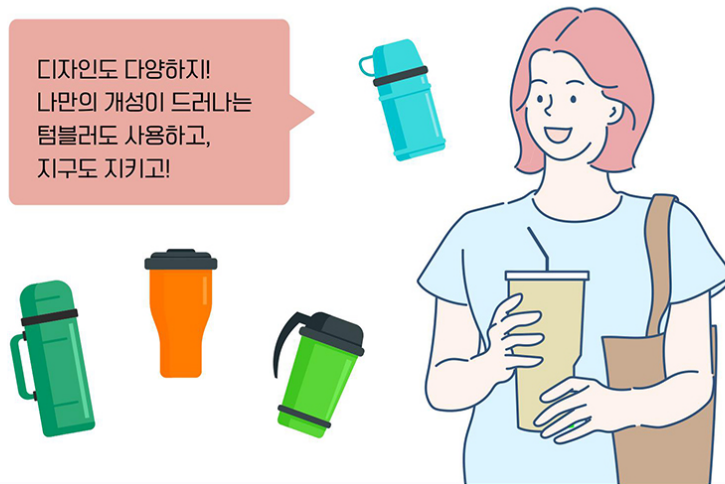
우리 친환경 사무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텀블러로 나를 표현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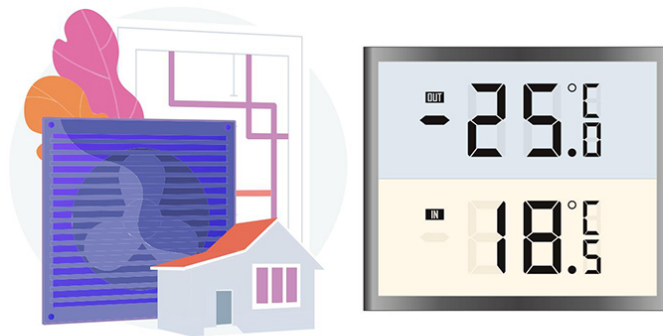
요즘 텀블러는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보온도 되는 텀블러를 사용 해보는 건 어때?

디자인도 다양하지!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텀블러도 사용하고,
지구도 지키고!



에너지 절약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18~21℃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스위치 ON-OFF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몰라!
퇴근 전, 불필요한 전기 스위치는 OFF



이면지가 어디서?

전화 메모를 할 때,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
똑같은 종이일 뿐!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그 날까지
오늘 하루,
환경 챙김 하셨나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의 발견

철저한 분리배출로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실천하다.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철저한 분리배출은 환경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일이다. 분리배출을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지구의 시간도 연장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분리배출의 핵심은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종이류 및 종이팩

신문지, 책자 노트 등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특히,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스프링,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게 깨끗하게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로 오염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상자류, 골판지 상자는 비닐 코팅된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팩/종이컵

살균팩, 멸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으면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종이컵도 마찬가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페페트병(음료·생수)

페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여 찌그러트려야 한다. 또한,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음료 용기는 은박지를 제거하고, 물티슈는 캡을 분리해야 한다.

그 외 기타 부착물이 붙은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부착물이 없는 스티로폼 본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소형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등은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15990903.or.kr'로 사전 예약을 통해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참고로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 신청이 가능하다. 대형 폐기물인 전기장판, 욕 매트, 조명기기, 악기 등은 개인적으로 폐기물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구·군청 청소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배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Recycle & Upcycle

WE, TONGRO, MAKE STOCK, SINCE CONFIDENCE WITH PRODUCING DIGITAL, BRIDGE BLOC, TRANSPARENCY BUSINESS, IN THE HAVE BEEN BUILDING OUT- STANDING SUCCESS IN DISTRIBUTING VARIOUS KIND OF COLLECTIONS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SUPPLYING OUR OWN COLLEC- TIONS TO MANY COUNTRIES THROUGH AROUND 45 CHANNEL PARTNERS.



분리수거 O, X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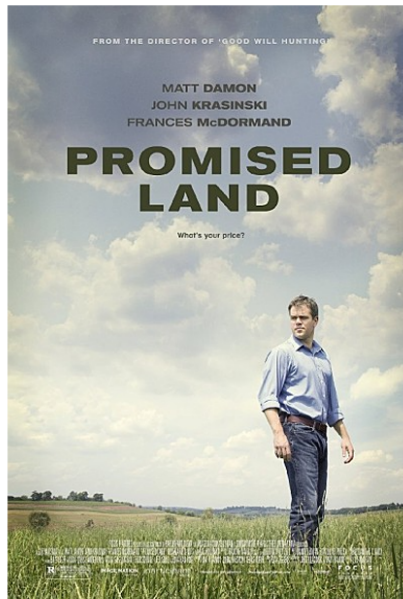
- Q1. 종잇조각, 각종고지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A. YES!
→ 종잇조각도 모이면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단,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 고지서 등은 유의해서 배출해야 한다.
- Q2.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A. NO!
→ 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 Q3. 알루미늄 호일은 캔 수거함으로 배출하면 된다?
A. NO!
→ 알루미늄 호일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 Q4. CD, DVD 등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A. YES!
→ CD, DVD, 고무대야는 재활용이 안 된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 Q5. 깨진 유리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A. NO!
→ 깨진 유리는 수거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문지로 감싼 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단, 양이 많을 경우 특수 규격 마대로 배출한다.

영화로운 ISC

진정한 가치, 진실한 가치, 그리고 진심의 가치

영화 <프라이미드 랜드>

[사진 - 네이버 영화]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동물이다. 무엇이 쓸모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저울질한다. 그 이유는 인생이란 길에는 무수한 갈래 길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갈림길에 설 때마다 무엇이 '더' 옳은지 신중히 골라야만 한다.



2012년 구스 반 산트가 감독하고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프라이미드 랜드>는 '가치'와 '선택'에 관한 영화다. 어찌 보면 단순히 보일 수 있는 '돈'과 '환경'이라는 이분법적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렇듯 그 안에는 다양한 인과관계와 가치의 대립이 존재한다. '회사'와 '마을'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인연을 맺는 인물들은 우리처럼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인다.



따라서 영화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지 않는다. 가치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논리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무조건 아둔한 것일까?' 오히려 영화는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틀린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주인공을 통해 가치를 탐구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 된 고민이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심'이 보인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 지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환경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발과 경제활동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말하듯 계속해서 만나고, 의논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각계의 인과관계와 이익을 고려하고, 삶에 대한 문제, 환경 보전과 효율 등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키며 '생각'과 '진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 중이며, 산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단순히 환경을 지키자는 주장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 스티브 버틀러(맷 데이먼)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은 진심으로 이끌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쩌면 그린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가치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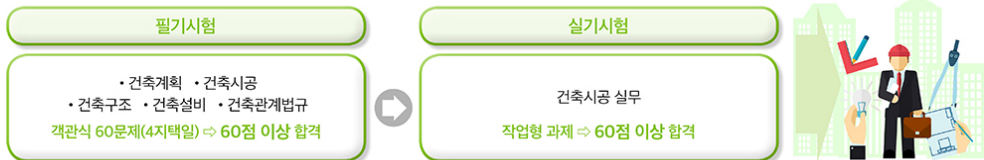
힘이 되는 자격증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 ‘건축기사’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12월에는 건축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건축기사는 건축시공 및 구조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능력을 평가합니다.
”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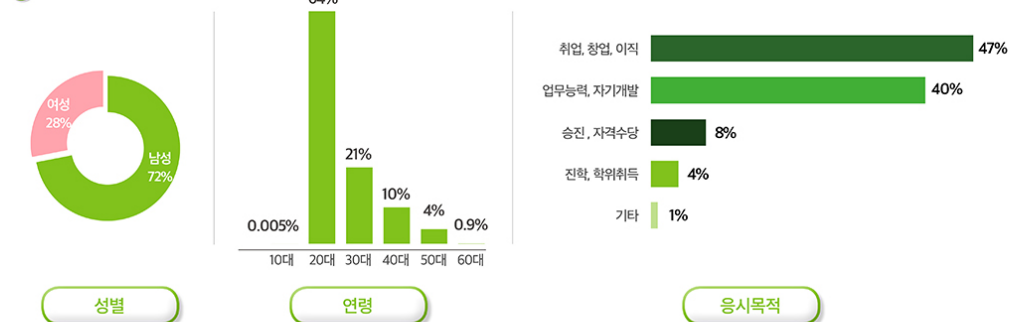


자격 취득 현황

○ 취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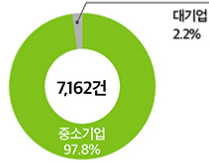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2,470명	3,127명	4,108명	3,861명	4,340명

○ 응시자 동향 (2018년 기준)



자격취득자 워크넷 구인현황 (www.work.go.kr, 2018년)

구인건수



채용 제안금액



우대 사항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인력 자격 요건(건축법 시행령)**
 - 자격 취득자에 대해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인력 자격 인정
- 건축물 현황도 작성자(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자격취득자에 대해 건축물 현황도의 작성자로 인정
- 주택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등록사업자 자격 요건(주택법 시행령)**
 - 자격취득자에 대해 주택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등록사업자로 인정

관련 직업 전망 (www.work.go.kr, 한국직업전망)

-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증가,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건물 수요 증가,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등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시공 및 안전관리에 빌딩정보모델링(BIM)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확대, 3D프린터를 활용한 건물 시공 기술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술 활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모든 것(큐넷) www.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www.ncs.go.kr | 직업·일자리 정보(워크넷) www.work.go.kr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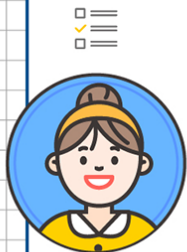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무엇인가요?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입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주요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산업·업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1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구성 및 역할

산업별 협·단체

- 산업계 주도 훈련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ISC-RSC, 공동훈련센터, 기업과 협의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기업 협약 훈련 채용 지원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산업계 주도 훈련의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약 체결
- 공동훈련센터 훈련 계획 수립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 채용예정자 훈련수료생의 채용 지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현황

연번	산업분야	산업별 협·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금형·금속가공·표면처리 용접(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뿌리I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6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아주대학교
7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8	정보통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2020. 10. 12. 기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어떤 훈련과정이 있나요?

4차 산업분야, 신산업·신기술·고속련 분야 등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스마트공장, 관광·레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16개 분야 78개의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운영절차가 궁금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주요사업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문의 지역산업별지원국 산업지원부 (052-714-8752, 879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공산의 관여
유지합니다.

이과
리 사람 월간 ISC
VOL. 22

공단-삼정호텔-ISC 업무협약 체결

공단-삼정호텔-ISC MOU 카드뉴스

공단-삼정호텔-ISC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피해기업(숙박, MICE)을 대상으로 공단-이해관계자 간
상생 MOU를 체결하여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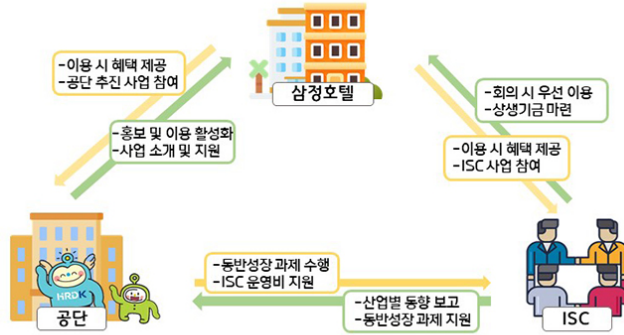
ISC 이슈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숙박업의 **매출감소** 및 **경영난** 확인

* (호텔업) 누적 피해액 약 4,924억 원(4월 26일 기준)
(국제회의업) 매출액피해 약 2,639억 원(2~4월 기준)



공단-이해관계자 간 **상생 MOU**를 체결하여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환경 조성

MOU 기대효과



-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 완수하여 자상한 이미지 브랜딩, 지속가능한 **Win-Win 체계 구축**
-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서 '같이'의 '가치' 창출 및 확산



- 사업명 숙박업계 힘내세요! <HRDK만실(滿室)이루미> 활동
공단-삼성호텔-ISC 업무협약 체결
- 사업내용 Step 1. MOU 체결·홍보
- **MOU 체결 및 삼성호텔 이용 홍보**(공단·18개 ISC)
- Step 2. 시설 이용
- 공단 주관의 사업과 ISC 주관의 사업 개최 시 규정 **상한금액 이하로 시설 이용**
- Step 3. 사회 환원·홍보
- '20. 12월 중순까지 집계된 수익금의 일부를 호텔 내 식당 쿠폰으로 발급하여 **어려운 이웃 등에 전달(기부)**
- 문의처 삼성호텔
박성준 지배인 (☎010-5121-3637)

